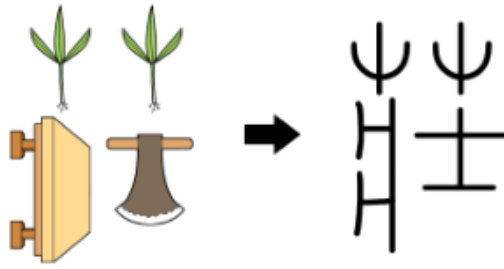


3(2)
-
341

회의문자 ①



莊

씩씩할
장

莊자는 '풀이 무성하다'나 '씩씩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莊자는 艸(풀 초)자와 壯(씩씩할 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壯자는 평상과 도끼를 함께 그린 것으로 '씩씩하다'나 '장하다'라는 뜻이 있다. 莊자는 이렇게 '씩씩하다'라는 뜻을 가진 壯자에 艸자를 결합해 풀이 쭉쭉하게 자라난다는 뜻을 표현했다. 그래서 莊자의 본래 의미는 풀이 '무성히 자라다'이지만 실제로는 '장중하다'나 '영토', '별장'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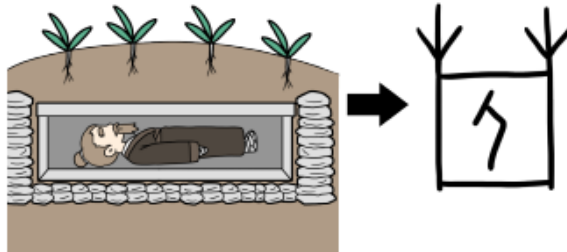
소전

莊

해서

3(2)
-
342

회의문자 ①



葬

장사지널
장:

葬자는 '장사지내다'나 '매장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葬자는 艸(풀 초)자와 死(죽을 사)자, 升(받들 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서는 총 두 종류의 글자가 '장사지내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나는 관에 누워있는 사람과 그 위로 풀이 심겨 있는 𣎵 모습을 그린 것이다. 다른 하나는 冢(나뭇조각 장)자에 死(죽을 사)자가 결합한 것으로 죽은 사람을 눕혀 장사를 지내고 있는 𣎵 모습을 그린 것이다. 소전과 해서에서는 두 글자가 결합 되어 지금의 葬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니 葬자에 쓰인 升자는 艸자가 변형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葬

갑골문

葬

금문

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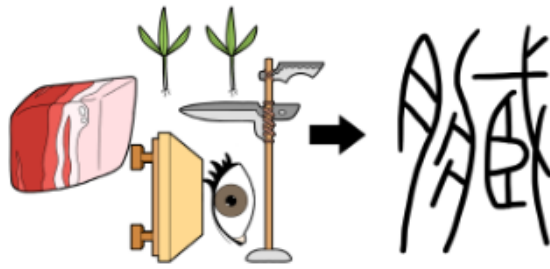
소전

葬

해서

3(2)
-
343

회의문자 ①



臟

오장 장:

臟자는 '오장'을 뜻하는 글자이다. 오장(五臟)이란 간장, 심장, 폐장, 신장, 비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배 안에 있는 여러 기관을 총칭하는 것이니만큼 글자 또한 복잡하게 그려졌다. 臟자는 총 22획으로 구성된 글자이다. 臟자는 月(육달 월)자와 藏(감출 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藏자는 '감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 藏자는 발음역할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부 속에 감춰져 있는 장기들을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다.

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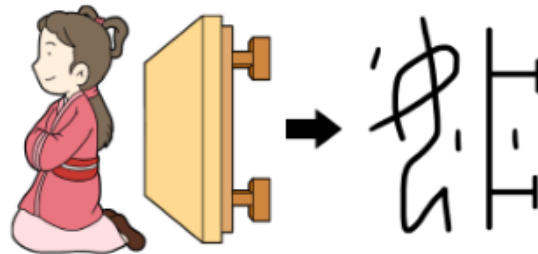
소전

臟

해서

3(2)
-
344

회의문자 ①



粧

단장할
장

粧자는 '꾸미다'나 '단장하다', '화장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粧자는 米(쌀 미)자와 庄(전장 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하지만 소전에서는 妝(꾸밀 장)자가 '꾸미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妝자는 화장대 앞에 앉아있는 여인을 그린 것이다. 하지만 해서에서는 화장대를 뜻하기 위해 壯(씩씩할 장)자가 변형된 庄자와 粉(가루 분)자가 생략된 米자가 결합한 粧자가 '화장대에서 분을 바르다'라는 뜻을 표현하게 되었다. 참고로 粉자가 생략된 米자는 화장할 때 사용하는 고운 분가루를 표현한 것이다.

粧

갑골문

粧

금문

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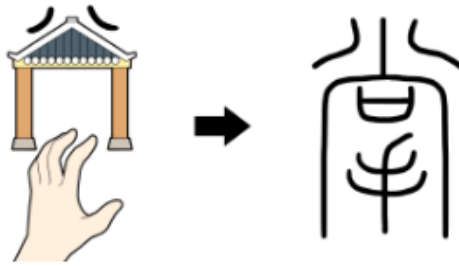
소전

粧

해서

3(2)
-
345

회의문자 ①



掌

손바닥
장:

掌자는 '손바닥'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掌자는 尙(오히려 상)자와 手(손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尙자는 집 위로 무언가가 뻗어 나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掌자는 이렇게 위로 무언가가 뻗어 나가는 모습을 그린 尙자를 응용한 글자로 여기에 手자를 결합해 손의 위쪽인 '손바닥'을 뜻하고 있다. 掌자는 단순히 '손바닥'만을 뜻하지 않고 '말다'나 '장악하다'와 같이 손바닥을 폼다가 쥐는 것과 같은 행위를 뜻하기도 한다.

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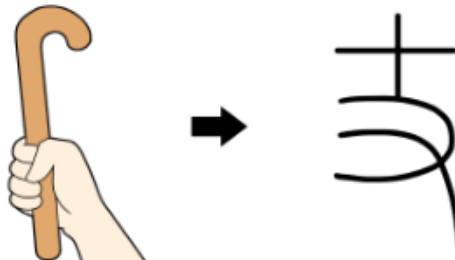
소전

掌

해서

3(2)
-
346

회의문자 ①



丈

어른 장:

丈자는 '어른'이나 '남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丈자의 소전을 보면 十(열 십)자를 손에 쥐는 모습이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丈자의 본래 의미는 '지팡이'였다. 하지만 지팡이는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후에 '어른'이나 '남자'를 뜻하게 되었다. 丈자가 '어른'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木(나무 목)자를 더한 杖(지팡이 장)자가 '지팡이'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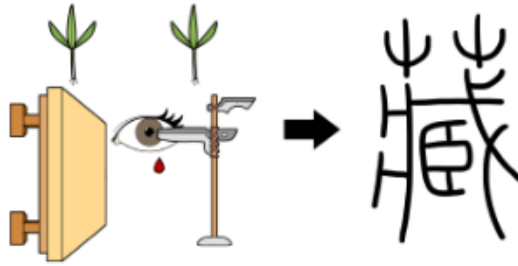
소전

丈

해서

3(2)
-
347

회의문자 ①



藏

감출 장:

藏자는 '감추다'나 '숨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藏자는 艹(풀 초)자와 臧(착할 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臧자는 臣(신하 신)자와 戈(창 과)자가 결합해 𠂔 있던 글자로 노예의 한쪽 눈을 멀게 하여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臧자에 '착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도 사실은 저항하지 못하는 노예를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예를 뜻하는 臧자에 艹자를 결합한 藏자는 도망친 노예가 풀숲에 숨었다는 의미에서 '숨다'나 '감추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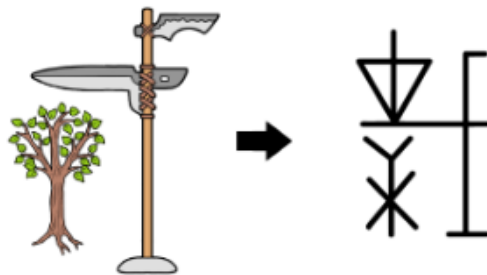
소전

藏

해서

3(2)
-
348

형성문자 ①



栽

심을 재:

栽자는 '심다'나 '묘목'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栽자는 木(나무 목)자와 戔(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戔자는 장식용 술이 달린 창을 그린 것으로 위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栽자는 '(초목을)심다'나 '어린싹', '묘목'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창을 그린 戔자는 묘목을 심기 위한 삽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栽자는 도구를 이용해 묘목을 심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栽

갑골문

栽

금문

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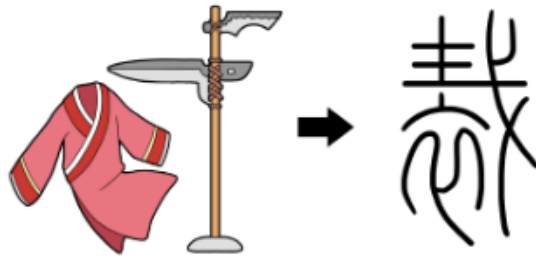
소전

栽

해서

3(2)
-
349

회의문자①



裁

옷마를
재

裁자는 '마르다'나 '짚다', '결단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裁자에서 말하는 '마르다'나 '짚다'라는 것은 옷감을 치수에 맞게 '자르다'라는 뜻이다. 裁자는 衣(옷 의)자와 장식 이 달린 창을 그린 戔(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戔자는 발음 외에도 무언가를 '자 르다'는 뜻을 전달한다. 치수에 맞게 옷감을 자르기 위해서는 정밀한 식별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裁자는 후에 '분별하다'나 '식별하다', '결단하다'라는 뜻이 파생되었다.

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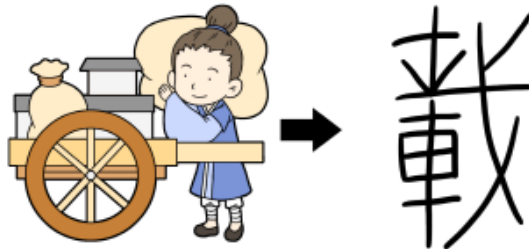
소전

裁

해서

3(2)
-
350

형성문자①



載

실을 재:

載자는 '싣다'나 '오르다', '등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載자는 車(수레 차)자와 戔(어조 사 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戔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載자는 수레 에 짐을 싣는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수레에 짐을 올리는 모습에서 '오르 다'나 '올라타다'라는 뜻이 확대되었고 짐을 싣어야 출발한다는 의미가 파생되면서 '시행하다'라 는 뜻도 가지게 되었다. 載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레에 짐을 올리듯이 글을 싣는다는 의 미에서 '등재하다'라는 뜻으로까지 쓰이고 있다.

載

금문

載

소전

載

해서